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동적가족화(KFD)의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박 현 미 (관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동적가족화의 반응특성을 통해 미혼모 자신의 근본적인 자아형태, 가족지각에 대한 반응 양상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들의 내면적 문제와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가족체계의 이론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동적가족화가 가족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검사도구로서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대구 시내에 소재하는 미혼모 복지 기관에 수용, 보호되어 있는 미혼모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KFD 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성 의식 질문지, 부모-자녀 유대관계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 PBI), 동적가족화(KFD ; Kinetic Family Drawing) 검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통계패키지(The SAS System for Windows V.8)를 이용하여 신뢰도,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variance analysis : ANOVA), Scheffe의 사후 검증법을 수행하였고, 동적가족화 (KFD ; Kinetic Family Drawing : KFD)로 가족의 역동성 및 행위수준을 검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의 성 의식, 부모-자녀 유대관계,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반응특성을 통해 미혼모 자신의 자아형태, 가족지각에 대한 반응 양상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부모가 생존하고, 함께 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2명 이상,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특성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버지에게는 통제와 과보호를 보였다. 환경변인 중에서 혼자 거주하고, 종교를 가질 때 부모를 더욱더 애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청소년 미혼모의 반응특성은 먼저, 자아상에서는 자신의 생략이 많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 미혼모의 자아상에서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모든 그림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특히 종교가 있을 때 신체상은 더 완전하고 표정도 더 좋았다. 자아상 있을 때 전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부모상간의 거리도 더 가까웠다. 부모의 상징은 주로 음식과 요리 기구였고, 인물상의 위치는 아버지, 어머니의 애정과 관계가 있으며, 인물상을 그린순서와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얼굴완성도는 어머니의 애정, 양육성은 아버지의 통제와 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유의미한 차이도 보였다. 넷째,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유대관계와 동적가족화의 상관관계 특성은 어머니의 애정과 살고 있는 가족형태가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어머니가 애정을 가질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할수록 친부모가 생존할수록 더 나은 인물상을 완성하고 인물상의 크기도 더 크게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는 부모의 유형과 생존 여부, 거주형태, 종교유무 등 가정환경과 부모 양육형태에 따라 부모자녀 간에 많은 영향력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다.